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10)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18-36개월) / 본당 2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37개월-PresK) / 할렐루야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K-1(킨더-1학년)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온라인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스튜디오),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비전채플), 11:00AM(스튜디오)
- 한어중고등부(CIM) / 샬롬채플, 온라인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소망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race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 · 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어버이 주일 예배 Mother'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i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 사도신경 .....All 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나의 사랑하는 책(찬234/새199장)
- 기도 Prayer.....All together **다같이**  
1부/김귀성 장로 2부/김세진 장로 3부/김수열 장로 4부/이병천
-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어머님의 넓은 사랑(편곡 김현철)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1, 2, 3부/룻기 1:15-18..... All together **다같이**  
4부/로마서 8:31-37
- 말씀 Message ..... 1, 2, 3부..... Rev. Sung Chul Hwang **황성철 목사**  
**부모님께 효도는 어디까지인가?**  
4부..... Pastor Micah Cho **조성현 전도사**  
사랑하면 괜찮습니다
-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어머니의 넓은 사랑(찬304/새579장)
-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거기에 있겠습니다
- \*축도 Benediction ..... Rev. Sung Chul Hwang **황성철 목사**
-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목회자 칼럼  
Pastor's Column

# 기대 Expectation



주성필 목사 / Rev. Peter Joo

우리 집에는 제가 집에 도착할 때마다 저를 열렬하게 반겨주는 식구가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기도 전부터 제가 온 것을 알아주고, 저를 보면 온몸으로 춤을 추며 반겨줍니다. 누구인지 궁금하시지요? 작년 가을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면서 반려견을 키우기를 원해서 못 이기는 척 유기견 보호소에서 두 살배기 래브라두들을 입양하였습니다. 몸집도 60파운드가 나갈 정도로 다 컸고 두 살배기면 어느 정도 말을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사람과 친밀감을 나눌 수 있는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고 유기되어서 그런지 분리불안증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집에 들이면서 교감을 나누고 친해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두 가지를 훈련했습니다. “앉아”라고 말하면 앉는 훈련, 그리고 공을 던져주면 달려가서 물고 오도록 하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제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했고, 그때마다 “굿 보이”라고 칭찬해 주거나 간식을 주는 등의 적절한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제법 이 녀석도 제 말을 알아듣고, 제 마음 한편에도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제가 집에 들어갈 때면 꼭 물건을 입에 물고서 저를 반긴다는 것입니다. 칭찬을 기대하고 말이지요. 그때마다 “아니야, 물건을 물고 오지 않아도 굿 보이야”라고 말해주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식사할 때면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온갖 애교를 부리다가 그래도 주지 않으면 ‘앉아’라고 말하지 않아도 먼저 제 옆에 딱 앉고서는 ‘앉았으니까, 이제는 먹을 것을 주세요’라고 보상을 기대하며 애절한 눈빛으로 저를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제가 훈련을 제대로 시키지 못해서 그런가 싶기도 하지만 ‘이 녀석도 나름 머리를 쓰고 있구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에게 기대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상대의 기대를 파악하고 그에 맞춰 행동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서로의 기대를 채워주면서 기쁨을 나누기도 하고, 서로를 향한 기대가 어긋나면 속상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많은 관계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도 아무런 기대가 생기지 않는다면 분명 그 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서로를 향한 기대가 일방적이거나 지나친 나머지 서로의 존재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요? 5월은 가정의 달이요 사랑의 달입니다. 우리 곁에는 우리의 기대를 채워주기 때문에 사랑스럽고 고마운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감사하고, 존재 자체로 사랑스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나친 모든 기대를 잠시 내려놓고, 소중한 분들을 떠올려 보는 것은 어떨까요? 곁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사랑합니다!

Every time I come home, there is one family member who eagerly greets me. He recognizes me before I even open the door. He dances in excitement with his whole body to greet me. Are you curious who this may be? Last fall when my son was entering college, he wanted a dog. Pretending that we are giving in, we adopted a two-year-old labradoodle from a dog shelter. The dog was fully grown weighing at 60lbs. Being two years old, we thought it would be somewhat trained. However, the dog was not trained at all in sharing closeness with people. Maybe because it was sheltered, the dog even had separation anxiety. Coming to our home, to become close, we trained it in two things. We trained the dog to “sit” on command and to fetch ball. With time he began to understand my commands. Each time the dog listens, I reward it with praises “good boy”, or give treats. The dog understands me pretty well now. It also has a place in my heart.

What’s amusing is that when I come home, the dog always greets me with something in its mouth. It expects praise. Each time I tell the dog “You are already a good boy. You don’t have to bring me things”. It’s futile. During our meal times, interested in food, the dog tries everything to get our attention. When no one gives food, it comes and sits right next to me, without being commanded to sit. With sad eyes, the dog stares at me with a look of expectation ‘I sat, give me food please’. I wonder maybe I didn’t train the dog well. But I also think ‘it is trying to out-smart me’.

The closer we are, the more we expect of each other. To become closer to one another, we figure out other’s expectation, and try to meet that expectation. We share in the joy of fulfilling each other’s expectations. We become upset when our expectations are not met. Within many of our relationships, if we don’t have any desired expectation from a person, then probably that relationship is not a healthy one. Even more, wouldn’t it be a serious problem if our expectation is unilateral or love and appreciation are lost for each other? May is a family month, a month of love. There are people around us that we are thankful for. We love them, not because they fill our expectations, but just by their existence. How about if we let go of our expectations and take a moment to remember those that are precious to us? Thank you, everyone, for being by my side! I love you just for being with me!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황성철 목사

# 부모님께 효도는 어디까지인가? 룻기 1:15-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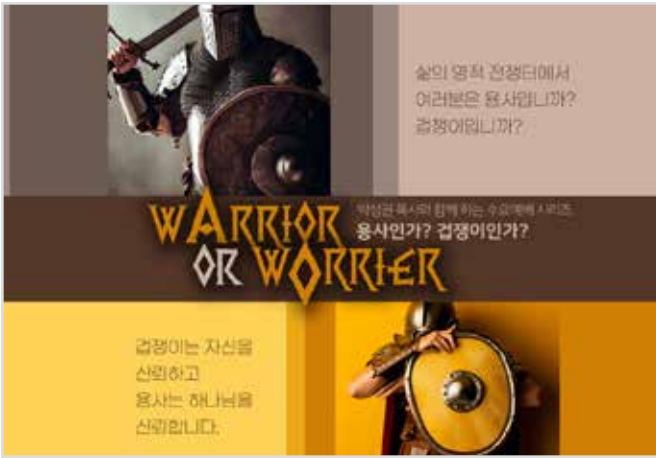
1. 자녀로서, 만일 부모님께서 현재 생존해 계시다면 자신의 효도 점수는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참고로 한국의 20대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효도 점수를 조사한 결과 100점 만점에 60.6점이었다고 합니다.
  
2. 룻의 이야기에서 도전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그것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나 혹시 부담이 되거나 거부감이 드는 부분이 있다면 왜 그런지 또한 나누어 주십시오.
  
3. 부모님을 살피드리고 있는 자녀로서 룻의 이야기를 자신의 자녀들에게 들려준다면 어떤 부분을 더 강조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을 더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나누어 주십시오.
  
4. 자녀로서 성장하면서 부모님께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들었습니까? 만약에 거의 듣지 못하고 자랐다면 무엇이 문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현재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그런 말을 자주 하는 편인지요?

**적용하기**



수요 예배

# 용사인가? 겁쟁이인가?



라 스트레스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당신이 물려받은 유전자에 따르면, 만약 걱정스러운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라면 학업에서 더 잘할 것이고 더 나은 집중력과 기억력을 가질 것이라고 합니다. 또는 용사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스트레스받을 때 더 일을 잘할 것입니다.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걱정을 다루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특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의 전쟁터에는 영적 전쟁도 포함됩니다. 육체는 언젠가 부활하여 새 육체가 될 것이므로 영적 전쟁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전쟁에는 영적 무기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 이 세상에 굳게 맞서라고 말합니다. 이 갑옷의 일곱 부분이 어떻게 이 전투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이 싸움에서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무장시키는지 알아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이 갑옷을 입고 어떻게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되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용사입니까? 겁쟁이입니까? 과학적인 관점은 이 전쟁터가 물리적이고 스트레스를 다루는 것이며, 유전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걱정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든 용사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든 유전학에 따

정 비타민과 영양소를 처방받고 견딜 수도 있지만 이것은 불안과 우울증의 치료 가능한 처방에 추가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육체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무시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을

우리의 영적 유전학이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스트레스 요인과 사탄과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기 위해 영적인 비타민과 영양소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용사가 되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박성권 목사

셀사역

# 뜨겁게 기도하는 베델 라구나우즈 연합모임

팬데믹을 지나면서 남녀노소 모든 세대에 걸쳐 쉽지 않은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시간을 지나온 세대는 시니어일 것입니다. 특히 베델교회의 라구나우즈 지역 성도님들께 3년은 큰 어려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팬데믹 전에 운전을 편하게 하시던 분들께서도 팬데믹 후에는 운전을 어려워하시고, 신체적 거동도 어려워지심으로 여러 가지 영역에서 연약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나면서 고민하던 중 이 지역에 우리 베델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교제하는 모임이 절실함을 깨닫게 하였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지난 4월 모임으로 3번째 전체 셀모임을 하게 하셨습니다.

매월 한 달에 한번 라구나우즈의 클럽하우스를 빌려서 정오부터 약 2시 전후까지 모임이 이어지는데 먼저 간단한 점심식사와 교제를 하시는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모여 찬양하고 말씀을 나눈 후 합심 기도를 하면서 영적인 예배를 뜨겁게 드리고 나면 2부 순서(레크리에이션, 발표회, 강의 등...)를 하고 모임을 마치게 됩니다.

라구나우즈 지역에는 비교적 연세가 있으신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러기에 대부분 개인적으로 열심히 기도하시고 신앙생활을 잘 하십니다. 하지만 함께 모여 특별한 영성을 가지고 베델교회와 다음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이 운동이 너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모임 중에 어른들께서 함께 모여 청년과 같이 뜨겁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진정한

베델인으로서 우리가 함께 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라구나우즈 연합모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따라 어려운 환경이 있더라도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믿음을 붙들고 베델교회와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의 다음세대를 위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중보하는 모임으로 나가려 합니다. 이 모임을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박경철 목사



어버이 주일 특집

# 엄마, 아빠 사랑해요!!



저는 엄마가 저를 위해 팬케이크를 만들어 줄 때 즐겁고, 아빠는 게임을 같이 해 주실 때 즐거워요.

김예진(K-1)



엄마, 아빠는 제가 아기 때부터 항상 저랑 시간을 보내주고 저를 기쁘게 해 주시려고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에게 고마워요.

이민준(K-1)



나를 낳아준 엄마에게 감사해요. 아빠와 엄마는 나에게 집, 음식, 옷을 사 주려고 열심히 일해요. 엄마는 내가 아프면 밤새며 돌보고 기도해요. 또 학교 갈 때 데려다주시고 야구 게임과 연습할 때와 다른 곳에 가야 할 때도 운전해 주세요. 아빠는 집에서 야구 연습을 도와주고 엄마는 피아노 연습을 도와주세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는 엄마 아빠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감사해요.

이주오(유년부)



나는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 함께 가고 가족이 모두 함께 게임을 할 때가 좋아요. 그럴 땐 사랑 받고 행복한 기분이 들고 나쁜 기분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줘요.

최지은(유년부)



내가 아플 때마다 부모님이 항상 나를 보살펴 주셔서 감사드려요. 나는 앞으로도 항상 최선을 다해 부모님을 돕는 아들이 되고 싶어요.

Jay Kim(초등부)



우리 엄마는 베이킹을 잘해서 내가 좋아하는 케이크를 만들어줘요. 나는 날 사랑해주는 부모님께 감사해요. 부모님과

보드게임을 같이 하며 시간을 함께 보낼 때가 가장 즐거워요.

Sean Kim(유년부)



저의 엄마는 아주 심플하고 재밌고 밝은 성격이에요. 아빠는 너무나 꼼꼼하시고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하고 회사에서는 카리스마 넘치는 분이지만 가정에서는 180도 달라서 저랑 아재 개그도 잘하시는 아주 다정한 아빠십니다. 저를 낳아 주시고 이름을 '주님의 은혜'라는 특별한 뜻으로 지어 주신 것, 제가 잘못하거나 실수도 잘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제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빠는 출장이 너무 많으신데 그래도 가족이 같이하는 시간에는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셋이 가족 여행 다닐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저는 고양이를 좋아해서 고양이 전문 수의사가 되고 싶은데요, 우리 엄마 생각은 다

르시 더라고요. 제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합니다. 그 기도를 하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엄마 아빠에게는 가장 효도일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June Lee(초등부)



엄마는 요리를 정말 잘하시고 떡볶이를 잘 만들어요. 아빠는 저랑 잘 놀아주고 항상 저를 웃게 해 주세요.

Grace Lim(K-1)



우리 부모님은 아주 멋지세요. 엄마는 우리와 함께 큐티인을 하는데 나는 성경 말씀을 배우고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즐거워요. 아빠는 나를 사랑해서 바빠도 나와 우노 게임을 해줘요.

Justin Yang(초등부)

**부모님께**

지금도 매일 저희를 위해 새벽 기도를 다니시며 평생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에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부모님이 아직도 건강하게 살아 계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을 낳고 나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며 엄마가 우리에게 잔소리도 거의 안하시고 늘 믿어주고 지지만 해주며 키운 게 쉬운 일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팔순이 되셨는데도 사회봉사를 하시는 아버지께도 존경을 보냅니다. 손녀들을 보고 싶어하는데 몇년간 함께 못 가서 죄송합니다. 올 겨울에는 꼭 모두 함께 찾아뵙게요. 사랑합니다.

- 남우영 집사 -



# 주님 바라기의 사랑



타주에서 이사 오면서 낯선 곳에서의 첫 출발에 긴장과 두려움도 컸지만 반면에 과연 어떠한 사람들과 믿음을 나누고 소통하며 다시 저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신앙의 이야기를 써 내려갈까 하는 기대와 희망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 기도로 준비하던 중에 한번도 저를 실망시키신적 없으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저의 기도 에 응답 하였고 이름만 들어도 저절로 행복해지는 행복한 셀로 저와 저희 가정을 인도 하셨습니다.

아휴 가정이나 되는 다소 많은 식구들 이지만 어느 한사람 낙오 되지 않게 서로를 품으며 관심과 사랑으로 하나의 가족을 이루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 하시는 셀원 한분 한분이 매 순간마다 반짝 거리고 빛나 보이며 사랑스럽던지요! 이 셀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또한 셀원 분들과 함께했던 바이블 클럽은 잊지 못할 큰 감동을 저에게 남겼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말씀속에서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며 치유해 나가는 좀 더 단단한 기도의 동역자들로 서로를 세워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 드렸습니다.

이렇게 저희 행복한셀이 앞으로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13:34)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며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가 저희 공동체에 임하여 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저희셀의 주님 바라기의 사랑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상달 되기를 바랍니다.

김정아 집사

## 내 신앙의 자서전

### 어머니가 주신 신앙의 유산



삼대째 기독교를 믿는 집안에서 성장하신 어머니였지만 철저하게 미신을 지키며 따르는 집안의 큰 며느리로 시집을 오셔서 기독교인이라고 핍박을 받으시니 자신의 신앙을 뒤로한 채 교회도 못 가시고 힘드신 시집살이 가운데 저희 세 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어릴 적 어느 주일날 저희 세 남매에게 헌금을 주시면서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로 보내시며 교회 학교에 다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세 남매는 헌금으로 군것질을 하기도 하며 교회 학교를 가지않고 놀이터에서 놀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고등학생 때에도 건성으로 교회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친정어머니도 가끔은 교회를 나가시게 되었는데 새벽에 눈을 떠서 거실에 나가 보면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 눈물이 누구를 위한 눈물인지 무엇을 위한 눈물인지는 제가 자식을 낳

고 키우고 세상의 고난도 겪고 나이를 먹어 가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내게 되니 어머니 눈물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64세라는 젊은 나이에 대장암 말기 선고를 받게 되셨고 그 이후에 믿음이 뜨거워지게 되시면서, 히스기야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여호와께 절실한 마음으로 병 고침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며 기도하셨던 열왕기하 20:1-11 말씀을 많이 묵상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셨던 어머니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천국에 가셨음을 믿습니다.

저도 늦은 나이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미국에 살고 있는 저에게 '교회 가까운 곳에 살면서 새벽 제단을 지키며 살라'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토요일에 헵시바 새벽 예배를 드리며 그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신 그 믿음의 길을 저도 지키며 따라가려 하며 지금은 비록 하나님과 떨어져 시카고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딸에게도 믿음의 유산을 전하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가정을 지키시고 사랑과 희생으로 저희 삼남매를 키워 주신 어머니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자는 끝까지 함께 하시며 지켜 주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기를 다짐합니다.

오경희 집사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 기획/행정/기도: 이충경 목사
- 사랑/BCA/QTM: 정승락 목사
- 소망/전도폭발/이웃사랑: 주성필 목사
- 믿음/예배/선교: 김홍식 목사
- 화평/베델워십/셀: 박경철 목사
- 은혜/교회학교: 박성권 목사
- 충성/훈련/평생교육: 조태현 목사
- 새가족/경조/예향: 한순교 전도사
- BGC: Dan Nam 목사
-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 일본어 예배/헬시바: 손용주 목사
- 예삼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 예삼채플: 공병주 전도사
- 예삼채플: 강수연 전도사
- 예삼채플: 조성현 전도사
- 영어고등부: 여옥제(John) 목사
- 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 한어중고등부: 이형석 전도사
-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 K-1: 정가영(April) 전도사
- 영아부: 이진영 전도사
-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 통역/제자반: 이앤드류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 지휘자: 김형직 목사
- 솔리스트: 최정원
- 뮤직디렉터: 정봉화
- 반주자: 한현미, 이정은

◎사역 간사 및 인턴◎

-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 유아부/한어권: 정티나 인턴 전도사
- 영어중등부: 이사라 인턴

◎교회 직원 및 간사◎

- 사무장: 마현진
-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 사무실: 인현미, 김은영
- 재정실: 이수민
-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 음향: 강창위
- 방송실: 최중형, 김지현
- 디자인: 박선경
- 웹: 김정아
- 수양관: 오춘란

사역광고

# 23-24년도 한국학교 가을학기 등록

베델 한국학교의 첫 수업은 큐티인으로 시작합니다. 아이들과 새삼 큐티인의 말씀을 나누고 아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나누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동안 몰랐던 아이들의 마음이나 상황을 알 수 있어 아이들을 이해하는 데 많은 유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 은혜가 넘치는 자리입니다. 1교시 후 간식 시간은 손맛 좋은 권사님 표 맛있고 영양이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 아이들이 무척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2교시는 레벨 별로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3교시는 다양한 문화 수업 체험을 할 수 있는 알찬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매주 교사 회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예배와 한 달에 한번씩 기도로 무릎 꿇는 선생님들은 한국학교의 가장 큰 자랑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 복음의 전달자로 서는 교사 지원에 성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 가을학기부터는 팬데믹 종료에 따라 비대면 수업이 대면 수업으로 전환되었으므로 등록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기간 전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니 서둘러 등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특별한 문의 사항이 있으면 학교 이메일로 연락해 주시기 바라며, 가정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 ▶ 가을학기 일정 : 8월 26일- 12월 16일(11월 25일 휴강)
- ▶ 등록 기간 : 5월 6일(토)-6월 4일(주일)
- ▶ 등록 사이트: school.bkc.org, 자세한 학사 일정은 bks.bkc.org에서 참고하세요.
- ▶ 등록금 : \$320(교재, 점심 제공), 6월 4일 이 후부터는 추가 \$30
- ▶ 문의: 윤미나 집사 (310)913-3360, koreanschool@bkc.org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5,6월)	5/21:	①부-김명수	②부-김양환	③부-김재훈	④부-윤제니퍼
	5/28:	①부-여홍평	②부-김백열	③부-김종현	④부-박제인
	6/4:	①부-김성균	②부-김정윤	③부-김인권	④부-박찬미

헬시바 토요일 새벽 대표기도(5,6월) | 5/20: 김기주 5/27: 강영재 6/3: 김동균 6/10: 김양래

강단꽃(5월) | 5/14: 박관규, 박세환, 선상균, 이서원 5/21: 이승대, 임명신 5/28: 송미선, 왕동원, 양성주

[의무실 (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오미숙(한외과), 간호사-김현옥 다음주 | 의사-연규호(내과), 간호사-김현옥

선교후원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김은경), 이버나버(옥소리),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Reza, 박기쁨  
BAM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필리핀 | 김승봉(유영선)

창의적접근지역 | 이희숙, 길예평(길진명), 희바(배안), 이상훈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MA, GP미주본부,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The Gospel Coalition(TGC)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 베델 알림판

# Bethel Announcements

### ◆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Happy Mother's Day! 하나님 안에서 모든 부모님께 감사와 사랑을 전하며, 귀한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총신대 신학대학원 실천신학 은퇴교수이신 황성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 ◆ 어버이 주일 선물 증정

예배에 들어오실 때, 부모님 되시는 분들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학생들이 제작한 카네이션을 드립니다. 더불어 8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은 가정당 1개씩 선물을 코트야드에 준비하였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드리오니 꼭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 ◆ 베델 수요일예배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드려지는 예배에서는 박성권 목사의 "Warrior or Worrier(용사인가? 겁쟁인가?)"라는 제목의 새로운 말씀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모두 현장예배에 참여하시어 깊은 기도와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저녁 7시에는 Youtube로 실황이 방송됩니다.

### ◆ 셀목자 정기모임

상반기 마지막 정기모임으로 진행 될 이번 모임은 셀목자님들을 위한 아침식사 준비 되오니 베델의 셀목자님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장소: 5월 20일(토) 헵사바 기도회 후, 본당

### ◆ 베델 기도학교 수료 및 종강모임

베델 기도학교 이후, 9개의 기도 소그룹이 구성되어 매일 돌아가면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기도자 되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상반기 기도사역 종강모임을 갖습니다. 기도학교 수료자들은 참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장소: 5월 18일(목) 오후 7시, 유년부실 문의: 주용중 집사 (949)812-2906

### ◆ 단기선교팀 모집

- ① 우간다: 건물 페인팅, 장애우 섬김, 의료, 사진, 결혼식 섬김 등의 사역  
일정/문의: 6월 12일(월)-21일(수), 김종곤 집사 (714)450-0015
- ② BAM 전문인 선교: 터키 교회의 자립을 돕기 위한 이스탄불에서의 컵밥 비즈니스 사역  
상호 - Popup Korean Restaurant(메뉴: 컵밥-불고기/떡갈비/닭고기)  
일정/문의: 5월 29일(월)-6월 5일(월), 박지학 집사 (217)390-4107

### ◆ 담임 목사 신간 구입 안내

김한요 목사님의 신간 '잊혀진 지혜 『인생의 블루프린트 십계명』'의 출판을 감사합니다. 십계명은 오늘을 사는 지혜요, 내일을 내다보는 로드맵이며, 성도의 삶을 그리는 블루프린트입니다. 도서는 구입은 카페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 유아부 Mother's Day 카드 전달

오늘 유아부 아이들이 Mother's Day를 맞이하여 코트야드를 돌며 어른들께 정성스런 카드를 전달해 드립니다.

### ◆ 교회학교 2023 VBS 교사 모집

원활한 VBS 진행을 위하여 중고등부 TA를 포함하여 어른 교사까지 많은 교사가 필요합니다.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신 모든 분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으니 많은 분들의 지원 부탁드립니다. VBS 기간: [영유아부] 6월 14일(수)-16(금), [K-5] 6월 21일(수)-24일(토) 문의 및 교사 지원 링크 받기: 각 부서 전도사

### ◆ 영아부 교사 및 소망부 토요학교 교사 모집

영아부(2부, 3부 교사 & TA), 소망부 토요학교에서 봉사하실 교사를 찾습니다. 영아부 섬김/문의: 3부 예배, 김성희A 권사 (714)423-5107 소망부 섬김/문의: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오후 1시, 박종민 장로 (949)742-1285

### ◆ BYM 중등부 찬양팀 모집

찬양은 예배의 문을 여는 귀중한 사역입니다. BYM Jr. High 중등부가 내년에 찬양팀으로 섬길 학생들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Sign up은 Google Forms으로 5월 28일(주일)까지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Daniel Hyeon 전도사(949)677-4911

### ◆ 일본어 예배 VIP 초청 आयु회

10주년 기념 예배를 앞둔 일본어 예배부에서 올해 작정한 VIP 분들을 모시고 आयु회를 엽니다. 주님 안에서의 즐겁고 행복한 교제와 복음 제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일시/장소: 5월 20일(토) 오후 3시, Mason Park 문의: 코바야시 타카시 집사 (949)504-0244

### ◆ 베델한국학교 가을학기 등록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는 베델한국학교 가을 학기 등록이 시작됩니다. 등록기간이 끝나기 전,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등록해 주세요. (7면 참고) 등록 기간/등록 사이트: 5월 6일(토)-6월 4일(주일), school.bkc.org 학기 일정: 8월 26일-12월 16일(16주 과정, 11월 25일 휴강) 오전 9시-오후 12시 30분 학비: \$320(교재 및 간식 제공) 문의: 윤미나 집사 (310)913-3360, koreanschool@bkc.org

### ◆ 교역자 동정

예살 청년부에서 섬기시던 조성현 전도사가 이번 주일로 사임하고 새로운 부르심으로 나아갑니다. 그 동안의 섬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베델성도의 배려와 양보가 베델주차장 염려를 없앱니다!** > 비전파킹랏 주소: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새가족 외 모든 베델성도님은 매 주일 비전파킹랏에 주차해 주시기를 바라며, 주차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기를 알려드립니다.

### 베델뉴스 편집위원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박은혜 권사 ■ 사진: 박성곤 장로, 최호경 집사
- 기자: 김규현 집사, 김성복 집사, 김혜영 권사, 남우영 집사, 배은섭 집사, 윤은정 집사, 이지애 집사, 정민주 집사, 최 신 권사, 황리나 집사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mailto: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 How Far is Filial Piety to Parents

Ruth 1:15–18

- 1.** If your parents are still living, as a child, what would your filial piety score be? For reference, a survey of 500 Korean men and women in their 20's on the filial piety resulted in a score of 60.6 out of 100.
- 2.** If you were challenged by Ruth's story, share specific aspects of your challenge. But if you felt burdened or rejected by Ruth's story, share why you felt that way.
- 3.** As a child caring for parents, if you were to share Ruth's story with your own children, what part of the story would you emphasize? Share your reason.
- 4.** Growing up, how often did you hear your parents say "I love you" "Thank you" or "I'm sorry"? If you grew up not hearing these things, what do you think was the problem? Presently, do you often say these things to your own children?

Apply to Life

